

직관개념 분석에 관한 연구

신 경 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직관이란 숨겨진 사고 양식(implicit modes of thought)을 판단의 기본으로 활용하는 개인들의 현상을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대부분의 학문에서 직관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간주되어 왔고, 따라서 질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다. 전통적인 간호학에서도 자연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물리적 실체만을 진실로 인정하고, 통계적 수치를 사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객관성을 중시여겨온 반면, 인간 사고 흐름의 주관적 측면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시하여 왔다.

21세기의 사회상을 보고한 Maynard 2세와 Mehrthens(1993)는 그의 저서인 제 4물결에서 세계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과학주의로부터의 각성으로 데카르트 이후 많은 서양의 사상가들은 합리적인 진리를 강조하였으며, 과학과 과학적인 방법이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합리적인 지성과 논리적인 사고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측정 불가능한 실재들, 설명할 없는 경험과 사건에 대한 증거가 점점 증가하면서, 감각과 직관, 그리고 또다른 비합리적인 방법들이 지식과 이

해를 추구하는데 있어 이성을 보완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둘째, 물질주의의 쇠퇴와 더불어 사회의 재정신화를 들 수 있다. 우리의 문화에서 정신적인 것이 다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직관적 지식과 전통적 분석적 기능의 혼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구 방식에서 보면 공업화된 제 2물결의 시대에서는 선형사고를 강조하였다. 즉 어떤 하나의 발견이나 결론에서 논리적, 단계적으로 내용을 제시하여 타당성을 얻었으나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떠오르는 연구인 지각하지 못하는 많은 무의식적인 동기부여 요소나 직관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 후기인 제 3의 물결에서는 직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과정이 연구와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공헌한다고 여기고 타당성을 부여하였으며, 인간의 무의식적 및 의식적 신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학문적 추세와 맥을 같이 하여 많은 간호학자들은 과학적 방법의 부적합성과 한계점을 인식하고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경험의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는,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보아야 한다는 흐름과 더불어 “직관적”, 즉 인식을 간호에서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본질로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Gatley 1992 ; Young, 1987).

Rew와 Barrow(1987)는 1900년부터 1985년까지 발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된 미국간호잡지(American J. ofnsg)를 분석했을 때 14,971개의 주제에서 오직 51개의 주제만이 직관개념과 관련된바, 간호현상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시에 필수적인 본질의 구성요소인 직관이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경우 본 저자가 간호학회지(창간호-1992년)와 대학의 석·박사 학위 논문(1965-1991년도)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직관이나 그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다룬 문헌을 단 한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간호학에서도 직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룬 문헌이 부족한 실정이며, 직관 개념 또한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직관의 개념을 간호학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게 위해서는 개념분석을 통하여 직관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여겨진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직관개념의 명확한 속성을 규명하여 그것의 모호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를 도우며 이론적 기초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Wilson(1963)의 개념분석을 토대로한 Walker와 Avant(1988)의 개념 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심개념인 직관개념을 선택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목적을 서술한다.

둘째, 직관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한다.

셋째, 직관개념의 정확한 속성을 규명한다.

네째, 직관개념의 모델사례, 반대사례, 창안된 사례를 구성한다.

다섯째, 직관개념의 전제(antecedent) 및 결과(consequence)를 확인하고 경험적 증거를 결정한다.

여섯째, 실증적 대상을 파악한다.

II. 본 론

1. 직관개념의 사용범위

직관(intuition)은 라틴어의 Intuitio에서 유래되었다. 그것은 동사 Intueor, 즉 In(內)+Tueor(僅)에서 파생되었는데, 사물을 안에서 보는 것이 직관이다. 대상을 분석적으로 보지않고 스스로 그 대상이 되어서 보는 것이 직관이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체의 주관적인 것을 버리고 자기를 무(無)로 하고 스스로 대상

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직관은 철학, 예술,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동양사상인 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간호학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사용되었다.

가) 타학문에서의 직관

철학자인 Westcott(1968)는 직관을 감각적 지식을 초과하여, 궁극적 현실의 완벽한 지식을 얻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Polanyi(1966)는 철학적 관점에서 직관이란 지식의 근간이라 믿어도 직관은 지각 및 통합(perception and integration) 두 활동의 암묵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직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추어진 자원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을 추적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추측과 상상으로 가동된 재료에서 관련된 증거를 선택하여 그것을 문제 해결책에 통합시키는 것이다(Polanyi, 1966, p77).”

Polanyi(1966)는 지각과 같이 직관은 학습되는 것이고, 감추어진 양상(patterns)에 보이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민감성에 뿌리를 두고 학습과정에서 효과적이고 개발되는 하나의 “기술(skill)”이라고 믿었다.

현상학적 관점의 직관은 현상학의 근본적 태도이다. 현상학은 본질을 다루는 본질학으로서 이 본질은 오직 직관의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현상학에서 의미하는 직관은 감각을 사용하여 개별적, 특수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感性的 직관과 대립하며, 比量的 推理로서의 사고와도 대립한다. 즉 감성이 아닌 이성에 의해서, 추리가 아닌 직관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Husserl의 본질 직관의 특징은 대상을 단번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변경 또는 형상적 환원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한전숙, 1980).

미학의 저자 Benedetto Croce(1972)는 직관이 미적(美的)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자연의 성질이 아니라 직관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종류의 선택과 합성에서 나온 산물이다. Croce의 견해에서 직관은 항상 미적 감각과 관련성이 있다. 왜냐하면 직관은 항상 다양한 외양의 통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신심리학에서 직관은 이론을 설명할 때 이용한다. 정신분석학자 Jung은 처음으로 직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의식적 정신상태를 4가지 정신과정, 다시

말해 2가지의 지각과정(감각 그리고 직관)과 2가지의 판단과정(사고 그리고 느낌)으로 분류하였다.

Jung(1946)은 직관을 주관적 직관과 객관적 직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주관적 직관은 주관적 본질의 무의식적인 “물리적 사실들”에 대한 지각이고, 객관적 직관은 “대상의 잠재의식적 지각들”이라 부른 것들과 잠재의식적 지각들에 의해서 발생한 생각과 느낌에서 나온 것들의 지각이라 했다. Jung은 또한

“직관은 비합리적인 기능이다. 그것은 감각(sensation)처럼 비합리적인 지각적 기능이다. 그것의 내용들은 감각의 내용들처럼 느낌과 생각의 내용들이 갖는 ‘추론’되거나 ‘끌어내는’ 특징과 구별하여 주어지는 특징을 갖는다(Jung, 1946, p48).”

현대과학과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의식)을 계층구조로 보고있다. 먼저 일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거나 듣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의식을 현재의식(conscious mind)이라 부른다. 이 현재의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잠재의식(subconscious mind)으로 여기에는 과거의 체험이며 기억의 모든 것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생각해내려 할 때 현재의식의 마음이 잠재의식 층에 내재된 기억을 찾아내어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의 바깥에 초의식(super consciousness)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정보는 물론 우주의 역사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 초의식은 우리들 개인 모두가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Carl Jung은 이 의식을 집단 무의식이라 부르고 있고, 이 초의식에 존재하는 것을 현재의식으로 인지하는 것이 곧 직관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Eric Berne(1979)은 직관을 지식의 무의식적인 근원으로 정의하였다. Berne이 말하는 직관의 개념은 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는 이것을 “임상적 직관(clinical intuition)”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감각을 통해 얻는 지식이라 하였다. Berne은 직관하는 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알고있는 지를 모를 뿐 아니라 때때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Berne의 직관론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는 “직관적 분위기(intuitive mood)”이다 이는 직관적 사고가 가장 활발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에 따르면 직관적 분위기를 통해 의미전달이 더 용이하게 된다. Berne 자신이

가장 잘 설명한 이 상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직관적 분위기는 지각적인 자아(Perceptive ego)가 어느 정도의 경계심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능동적이 될 때 강화된다.

이 분위기는 연습을 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정신의 집중을 요하므로 쉽게 피로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의 직관은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관은 주어진 분야의 경험을 통과하는 경험에 의해 모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내외적 이질적인 물리적 자극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Berne, 1977, p42).”

Berne은 직관적 기능은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통합된 방식으로 작용하는 일련의 지각과정(a series of perspective processes)임을 깨달았다. 그는 또 “직관으로 잡은 것”과 “직관자”가 자신의 직관이라고 말한 것이 다름을 발견하였다.

교육자들인 Bruner(1977)은 교육방법에 있어 교육효과와의 교육에 의한 표준적 기술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관적 기술과 직관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Bruner(1977)은 “교육과정(The Process of Education)”중 직관에 관한 다양하고 중요한 관찰을 하였다. 그는 수학시간에 두 가지 종류의 직관이 분명히 있음을 간파하였다. 하나는 무엇이 그렇다거나 여러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방식 중 어느 것이 타당하다 라는 매우 훌륭한 추측을 내릴 수 있는 직관이었고, 또 하나의 직관적인 수학적 사고방식은 공식적인 입증 없이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Bruner는 주장하였다. 또 Bruner는 직관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의 분석적인 수단에 분명히 의존하지 않은 채 어떤 문제의 의미나 중요성 또는 구조를 파악하는 행동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수학자인 姜時中(1985)은 직관적 사고의 특성에는 문제 해결에 따른 사고의 민감성, 유연성, 방향성, 신속성, 의욕성이 있는 것으로 창조적 개발을 자극하는 촉진제가 되고, 사고 대상을 인지하는 활동이 다소 불분명한 사고이며, 문제 해결의 방향을 꿰어 보는 사고로서 논리의 방향을 시사해 준다고 보고하였다.

Knight(1989)에 의하면 직관은 의도적인 논리나 즉각적인 감각적 인식의 결과가 아닌 지식의 직접적인 이해라고 하였다. 즉 그것은 종종 ‘갑작스런 순간의 통찰’로 경험되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강력한 확신감이 동반되는 지식의 직접적인 이해

이다. 직관적인 지식은 인간경험의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직관은 많은 파동의 형태와 공명하면서 행동이라는 면에서 이제까지의 이성적 판단과는 명백하게 다르다. 인간이 현실을 훨씬 초월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의식이다.

경영학에서도 직관을 사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개성과 구체성과 초월성을 겸비하는 목적이 명확한 기쁨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경영자의 실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분석 등에 의존하는 회사보다 경영자의 직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가 더 발전한다고 하여 직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질적으로 경영체계에 직관력을 이용하여 창조적인 사고(idea)를 창출하여 성공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Maynard & Mehrten, 1993).

동양사상인 유교, 불교, 도교에서도 직관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直觀의 의미를 살펴보면, 直은 누가 보아도 한결같은 것, 즉 본질을 말하며, 觀은 一心정성으로 심안을 통하여 보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깨달음은 곧 직관이라고 했으며, 금강경(불교사전, 1986)에서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 直心이라 하며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였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不立文字), 곧바로 마음을 지적해내며(直指人心), 성품을 보아 부처에 이른다(見性成佛)고 하였다. 직관은 자아의 管見 즉, 자기 경험 중심의 고착된 생각이 집착을 완벽히 떠나야 하며, 어떤 분석이나 논리를 배제한 것으로 말로써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선(zen)은 근본적으로 직관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이다. 즉 사람이 얻은 지식이 삼단논법적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종종 어떤 상징적 해석과 무관하며,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이다. 직관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 비록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구해진다. 예를 들어 인간이 창조된 방법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잠시 이 해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두고 명상을 해본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던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시간이 지나면 인간존재의 본질에 관한 진리가 잡힐 수 없으나 매우 강력한 직관적 수준에서 매우 명료해질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의 分別知는 차별상을 전개하고, 지혜는 이

것을 초월하여 무차별적 속성을 지닌다. 직관은 어떤 수학적 토대나 분석적인 경험을 거치지 않고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판단이다.

禮는 동양사람이 깨닫고 있는 동양적인 철학이다. 마음을 흐리게 하는 여러가지 욕망과 염려를 헤치고 구름 속에 숨어 있는 실체를 직관에 의하여 보고자 한다. 無心이라는 것은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Nichts, Nothing Ni1이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마음속을 직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체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 아니다(운태림, 1964).

孔子는 默而識之, 즉 直과 眞(德의 본字)이 누가 보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정받는 행동)은 같은 맥락으로, 즉 事事物物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에서 참다운 앎이 얻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物을 바르게 보는 것으로써(格物) 참다운 앎에 이르는 것(理知)이라 하였다. 즉 지식의 최고원리는 많이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면서 얻는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고, 말과 글로써 설명할 수 없는 체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경지이다.

孔子는 理知는 直의 마음(眞)을 갖는 것이고 이 直心에서 얻어진 것이야말로 理智와 德性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자가 강조하고 있는 직관은 논어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실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곧 글을 배우라
(行有人力이어든 別以字文이다)(세계의 대사상 26권, 1974, p185)”

즉, 여기에서 말하는 실행은 品性의 끊임없는 도야를 말하는 것으로 직관도품성의 도야가 필요불가결한 선행조건으로 보았다.

노자는 참된 앎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관(觀)을 중요시 여기었다. 觀은 ‘통찰한다’, ‘살펴본다’, 그리고 ‘비추어본다’는 뜻으로써 체험통찰을 통한 직관을 말한다. 도덕경의 1장내에서

상무욕(常無欲)으로써 그 妙를 觀하고,
상유욕(常有欲)으로써 그 線支를 觀한다.
즉 욕심이 없음은 막힘이 없는 것이고,
욕심이 있음은 막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무욕은 구체적으로 無我를 말한다. 즉, 막힘이 없어서
남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세계의 대사상 27권, 1976, 39).

다시 말하면, 노자는 직관을 지닐 수 있는 조건으로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다시 말해 막힘이 없는 것이 본질을 빠르고 정확하게 터득하는 첩경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직관에 관한 동양적인 관점은 간호인의 우리 자신에게 직관의 중요성을 가르쳐줌과 아울러, 품성적 도야가 간호 상황에서 직관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비중있는 요소로써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나) 간호학에서의 직관

직관 개념은 간호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간호에서 임상적 직관은 어떤 과정으로 정의된 반면, 간호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즉 간신히 말로 표현할 수 있거나 그에 대한 지식의 근원을 판단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Benner & Tanner, 1987 ; Rea, 1989 ; Young 1987).

Benner(1984)는 중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직관적 파악”은 매우 복잡한 임상적 상황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임을 인정하였고, 직관적 지식은 복잡하고 각 개인 환자를 위한 가능성의 고려가 요청되는 기술적인 판단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Benner는 직관은 함의성 없이 이해하는 것이며, 직관적 판단을 초보자가 기계를 통한 계산 등 전문적 판단으로 부터 구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임상간호사가 변화하는 간호실무에 따라 의미 있는 경험을 형성하는 높은 임상 지식으로서 사용한 직관의 전형적인 예를 제시한다. 이처럼 직관을 이용한 예를 체계적으로 기록한다면 간호행위에 깊이 뿌리박은 지식의 발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직관은 이러한 의미에서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과거의 예를 끌어내는데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식’을 ‘노하우’로 바꾸는 것이다.

Young(1987)은 직관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간호상황에서 사정(assessment)을 할 때 직관을 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직관적 활동은 간호진단과 정의 한부분임을 주목했다. 그녀는 또한 임상학적 직관은 개인적 앎의 하나의 형태(form of personal knowledge)로써 말을 할 수 없는 환자나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나 지식의 근본이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간호사가 아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상적 직관은 개인에 대한 앎에서부터 출발하여,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지식은 조건을 의미하며 직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한다.

Correnti(1991)는 직관적 지식은 간호의 예술과 간호과정의 본질적인 구성물이라고 하였다.

Peterson과 Zderad(1976)는 간호학에서 현상학적 간호에 관하여 최초로 언급한 학자들이다. 이현상학적 간호라는 용어는 심사숙고한 간호사와 간호대상자의 경험들에 대한 설명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한 방법론에 대한 그들 나름의 용어이다. 이러한 깊은 생각으로 이들은 설명을 끌어내 결국 일반화된 지식의 합성에 이르렀다. 그들이 제시한 현상학적 간호 과정은 다섯 단계로 세분되었는데, 이 중 두번째 단계에서 간호사는 타인을 직관적으로 아는 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간호 상황에서 직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Hammond(1984)는 간호시 알아가는 과정의 상이한 면들을 활용, 구성요소, 그리고 자신이 임상적이며 추론적인 추측이라 설명한 것을 구하는데 사용한 전략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하는 추론이 때로는 논리보다 더욱 직관적이며... 이론적인 지식보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가정하였다. Hammond는 직관이 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인정하였다.

Schraeder & Fischer(1987)는 직관은 비록 의학 검사가 환자의 변화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감각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직관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직관적 지식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은 직관적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를 발견하였는데, 첫째 요소는 간호사의 성격으로 직관은 가장 경험있고 기술적으로 노련한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요소는 아기와의 친밀감이었다. 셋째 요소는 각 아기의 치료법을 감지하는 것이며, 그리고 넷째 요소는 직관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과거 경험과 현재 감지능력간의 고려라고 설명하였다.

Gatley(1992)는 직관이 가능성, 의미 그리고 관계 등에 대한 감지능력을 통찰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직관이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측을 확인하는 속성을 지니며 의식 표면으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관련이 없던 것으로 보이던 사건들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창조적 발견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Rew(1988)는 지금까지 간호사들이 받아온 교육방식은 환자에 대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자료로써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간호사의 직관력은 가끔 환자를 돌보

는데 있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관적 경험을 인식하는 것은 의사소통 및 간호 실무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사전적 정의

다음의 개념 설명들은 명사로써의 직관 개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몇가지 사전에서 구한 설명이다.

- “추론, 추서없는 사고, 논리, 및 기호와 개념의 채택 등을 모두 배제한 채 직접 아는 방법;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직접 습득하는 것 혹은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과 비슷하게 느끼는 감수성”(Oxford, 1961, p324).
 - “추론이 전제되지 않은 정당화되지 못한 진실한 믿음; 어떤 명제의 진실에 대한 직접적인 앎; 어떤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앎; 어떤 실체에 대한 비전문적 앎”(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1962, p204).
 - “의식적으로 기존의 생각에 잠기지 않는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앎; 기존의 인습을 배제한 채 내린 판단”(Dictionary of Psychology, 1975, p270).
 - “즉각적인 이해나 인식; 직관으로 얻은 지식이나 확신; 분명한 생각이나 추론 없이 직접적인 지식이나 인식을 얻는 능력 또는 재능”(Webster’s Dictionary, 1986, p635).
- 직관에 사용된 관련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 “즉각적인 이해, 인식, 직접인식(anschauung), 통찰, 육감”(Webster’s Collegiate Theasurus, 1971, p324).
 - “사고과정과 무관한 직접적인 지각, 지적이며 직접적인 인식에 의한 즉각적인 지각, 본능적인 지식, 첫눈에 파악한 이해, 통찰, 내재된 지식”(Rodale, 1984, p30).
 - 바로 눈에 보임. 직각(直覺), (국어대사전, 1991, p2580).

2. 직관의 속성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본 직관의 속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실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앎이라는 점, 일정한 분석 절차나 논리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알게된다는 점, 그리고 동양사상에서 특히 잘 나타나 있는 직관의 속성으로 인간의 품성적 측면이 강조된 우주와의 합일을 통한 사물 전체를 종합하여 얻어지는 앎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관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직관은 진실에 대한 설명 불가능한 앎.
2. 직관은 논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알아내는 방식,
3. 직관은 이론적인 분석이 배제된 앎.
4. 직관은 개인적 경험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닌 사물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덕성적 품성을 바탕으로 하여 얻어지는 앎.

3. 전례 및 결과

개념의 전례 및 결과를 결정하면 직관의 정의적 속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념의 전례는 그 개념전에 발생한 일이나 사건을 말하며, 결과는 그 개념의 결과로 발생한 일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본 직관 개념의 전례는 분석절차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지식이나 사실의 기초와 우주와 내가 합일하는 氣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직관의 결론은 이론 및 실제 방법 모두에서 분석절차와 지식의 적용을 통한 사실의 입증으로 구성된다.

4. 다양한 사례들

직관의 개념, 전례, 결론 등으로 정의된 속성들은 다음 예에서 나타나는 실생활 상황으로 구성된 모델 케이스를 갖는 다양한 케이스를 구성해봄으로써 증명 가능하다.

가) 모델 사례

李 간호사는 외과병실에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풍부한 임상경험과 간호직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환자와의 일체감을 갖는 태도로 일관하여왔다. 간호대상자인 金씨는 복부수술 후 영양공급을 위해 TPN therapy(수액을 통한 고영양공급법)을 받고 있었다. 이 간호사는 낮번 간호사로 부터 金씨가 계속 잠을 자는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 후 金씨의 상태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 후 하던 일을 잠시 멈춘 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 후 金씨가 고혈당성 속에 빠졌다는 영감이 순간적으로 스침을 느꼈다. 즉시 담당 의사에게 보고한 후, 金씨의 혈당검사, 맥박, 혈압, 뇨량 등의 검사와 입안에서 나는 단 냄새, 구강건조, 기면상태 등 외적인 증상들을 종합하여 고혈당성 속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金씨에 대한 조기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결과 환자의 상태는 곧 회복되었다.

이 모델 사례에서 직관 개념의 모든 정의적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간호사는 객관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진실에 대한 앎(객관적 자료 없이 고혈당성 속 상태를 판단함)을 어떤 일정한 과정이나 이론적인 분석이 배제된 상태에서 알았으며, 이러한 앎은 기의 흐름을 통해서 즉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환자를 단지 잠자는 것으로만 알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일체감을 가지고 임하는 이 간호사의 품성과 아울러 김씨의 이전의 수면 양상,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의식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값은 관찰의 결과 얻어진 앎의 형태이다. 이 모델 사례의 전례는 진실의 존재함(고혈당성 속)과 기의 흐름의 감지였으며, 결과는 전례와 직관, 그리고 객관적 분석절차를 통해 고혈당성 속을 확인한 수 적절한 간호중재를 취함으로써 지식의 적용을 하였다는 점이다.

나) 반대 사례

정의된 속성의 개념과는 반대되고 그 개념의 예가 될 수 없는 사례이다. 박씨는 내일 위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밤부터 이유없이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담당간호사는 박씨의 혈압상승정도, 맥박, 호흡, 안절부절함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의사에게 보고하였고, 의사는 혈압약을 투약하도록 진화로 지시하였다. 담당 간호사가 혈압하강제를 투여하였으나 30분이 경과하여도 여전히 혈압은 매우 높았다. 그래서 더 강력한 혈압하강제를 투여하였다. 2시간 후 박씨의 혈압은 급강하기 시작하여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각종 의학적 조치를 취하였다. 박씨는 처음으로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였고 따라서 수술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혈압이 올랐던 것이다.

이 사례는 직관 개념의 속성, 전례,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사례의 전형적인 예이다. 즉, 담당간호사는 박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만 의존하여 의사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의 상황을 보다 직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따라 중재를 하였다면 박씨는 안정을 찾고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관을 사용하여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박씨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다) 창안된 사례

모델 사례와 같이 직관개념의 속성이 모두 통합된 것으로, 실제 경험 밖의 사례를 사용한 경우이다.

우주의 창조주가 협력자들에게 자신을 도와 지상에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준다. 창조주의 인간들의 가정에서 함께 사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상에 수많은 영혼들은 창조하셨다. 협력자들은 올바른 영혼들을 가정이라는 그룹으로 함께 묶어 주는 일이었다. 그러면 어떤 영혼들을 함께 살도록 선택해야 할까? 그분의 직관, 곧 창조주의 협력자들은 모든 개인들을 신속히 살펴보고 순식간에 그들의 심리, 성격, 동기, 개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인간들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 창조주의 협력자들이 창조주의 뜻이 창조적 앎에 기뻐하셨고 그 선택으로 입증된 당신의 직관의 이해에 기뻐하셨다. 가족내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관으로 진실을 자각하는 명이 모자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는 가족문제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도전의 걸음으로 보이는 면 이상의 그 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보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철학은 직관의 속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창안된 사례는 모든 정의적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본 사례의 경우 합리적인 분석 없이 즉시 개인들의 성격에 관한 진실에 관한 모든 지식을 수용할 능력과,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을 종합하여 통찰할 수 있는 창조주의 품성 등의 직관의 속성이 있다. 개념의 전례와 결과 역시 분명했다. 진실은 존재했으며 협력자들은 우주와 명상을 통한 기의 흐름을 감지하여 창조주의와 하나가 되어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도록 인간들을 도왔다. 진실은 함께 모여 사는 가족의 관찰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5. 실증적 대상(Empirical Referent)

본 직관의 개념 분석에서 마지막 단계는 그 개념이 어떻게 측정 또는 결정되어 실세계에서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는 실증적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정방법 중 하나인 Briggs-Myers식 지표(MBTI)는 특정 연구환경에서 일군의 직관적 유형들을 보여준다.

Jung(1964)의 형식이론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Briggs와 Myers(1985)는 MBTI를 개발하였다. 이 심리 측정 설문지는 사람의 융의 용의(Jungian)의 유형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MBTI의 주된 목적은 융의 이론에 따라서 자각과 판단력의 사용을 안내하는 네가지 기본적 선호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선호감은 사람들이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관심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각한 것에 관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에는 영향을 미친다. 네 가지

선택은 외향성 대 내향성, 지각(sensing) 대 직관, 사고 대 느낌, 자각 대 판단이다.

보다 최근에는 Singer-Loomis식 개성목록(SLIP)이 개발되어 항목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독립된 존재에 기인한 심리적 유형을 판단하는데 MBTI보다 정확한 시험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한 조사자들은 의미있는 요인으로 직관을 포함하여 개인의 인식방법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Ⅲ. 간호교육에서의 직관 그리고 맺음말

Walker & Avant(1988)의 개념 분석 틀에 근거하여 직관의 개념을 분석한 결과, 직관 개념은 진실의 설명 불가능한 앎, 즉각적으로 알아내는 방식, 이론적인 분석이 배제된 앎, 개별적 경험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닌 사물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덕성적 품성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앎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관 개념의 전례는 분석절차로서 추적이 불가능한 지식이나 사실의 기초와 우주와 자아가 합일하는 기의 흐름이다. 직관개념의 결과는 이론 및 실제 방법 모두에서 분석절차와 지식 적용을 통한 어떤 사실의 입증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직관과 논리적 사고과정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Salk, 1983). 따라서 우리는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개념들을 인식, 분석, 교육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또 간호실무에서 결정을 내리는 직관적이고 기인식적인 구성요소들과 관련된 개념들을 인식하고 가르쳐야만 한다.

간호학생을 교육할 때 직관의 이용은 역시 중요하므로, 특별히 간호교육적 측면에서 직관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관은 일정한 조건을 요한다. 즉, 일정차원 이상의 지식, 일정차원 이상의 지혜, 올바르게 사는 방법, 높은 인간성, 그리고 자기능력의 인지 등이 충만되어 있는 사람은 교육, 훈련, 수련을 통해 올바른 직관력을 갖출 수 있다. 의식은 확립되어가는 것이고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몸에 베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통사람과는 다르게 훌륭한 직관을 발휘하려면, 그 나름대로의 소질과 풍부한 의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자들은 대학 및 대학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직관적인 능력과 방법을

인식하도록 고무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과 직원발전(Staff development)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관적 방법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직관의 기술을 향상시키려면 방해 없이 지식의 대상에 정신을 집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수행한 일이 반드시 잡음과 무질서를 줄여주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시간이 무관하고, 상대적이며, 통제가능하다는 생각을 끌어내야 한다. 예를들면 계속적인 선(meditation)과 명상을 통하여 직관을 얻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즉 수업시작 전에 5분 정도 명상 음악을 듣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Bruner(1960)는 수업 중에 직관을 통한 지식 습득 방법이 자주 무시됨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했다. 객관적인 대답을 주는 것이 주관적인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경쟁적인 면학분위기에 직관적인 접근방법은 가치가 덜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이 합리적이라고 불리는 논리적 사고과정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은 아니며 세계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실에 대한 앎의 열쇠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존재하므로, 교육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뭔가 막혔을 때 꼼꼼히 생각하게 유도하는 등, 사고의 방향을 잡아주어 학생들의 직관적인 사고 방법을 고무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특별한 방식의 조사나 어떤 절차의 기계적인 적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주관적인 이해를 탐구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직관력을 기르는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관적 사고방식을 학습방법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창조적인 간호교육의 첩경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간호학생들은 직관적인 지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에서 받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도 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직관적 기술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즉, 체험이 적은 간호사나 학생들과 함께 직관적,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직관에 관련된 용어나 정의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간호교육자들은 간호학생과의 관계를 통하여 학문적 지식의 나눔의에도, 다음과 같은 인격 도야 훈련을 요한다. 첫째, 상대방의 견해에 서서 생각하는 훈련(易之思之)이다. 즉, 공자의 말씀처럼 小我를 떠나서 大我が 되면, 직관을 할 수 있는 품성을 이룬다고 하였다. 둘째, 선입견을 버리는 훈련으로,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므로써 직관을 방해하는 요소들 제거할 수가 있다고 말한다. 셋째, 직관은 바른데서(直) 나오므로, 知行合一되는 소견과 태도가 일치될 이루어야 하므로

간호교수는 먼저 바른것에 대한 수행을 통하여 학생에게 교육을 통해 전달될 수 있고 나아가 간호사가 되어서 그 바름이 환자에게 전이될 수 있으므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직관 개념은 사고 방법의 발전 방식 및 그것이 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되는 방식에 관한 측면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참 고 문 헌

- 강시중(1985). 수학교육에서 직관과 논리의 역할.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세계의 대사상 26권(1974). 서울 : 휘문출판사.
- 세계의 대사상 27권(1976). 서울 : 휘문출판사.
- 윤태림(1964). 한국인의 성격. 서울 : 현대교육업서출판사.
- 이승녕, 남광우, 이웅백, 이울한(1991). 국어대사전. 삼성물화사.
- 한갑진(1983). 석존의 직관. 한진출판사.
- 한국학회 지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가.
- 한전숙(1980). 현대의 철학 I. 서울대학교 출판부.
- Benner, P.(1984). Form novice to expert. Menlo Park, CA : Addison-Wesley.
- Benner, P., & Tanner, C.(1987). Clinical judgment. American Journal of Nursing.
- Berne, E.(1977). Inuition and ego states : The origine of transactional analysis. San Francisco : TA Press.
- Brunner, J. S.(1991).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H : Harvard University Press.
- Correnti, D.(1991). Intuition and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23(2).
- Croce, B.(1972). Aesthetic (translated by Douglas Ainslie). New York : Noonday Press for Farrar, Straus and Girons.
- A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1962).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 Dictionary of Psychology(1975). New Work : Dell.
- Fischbein, E.(1987). Intuition in Science and Mathematics. Boston : D. Reidel.
- Gatley, E. P(1992). From Novice to Expert : The Use of Intuitive Knowledge as a Basis for District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12, 81-87, Nursing Practice, 1(3) : 63-71.
- Hammond, K. R., et al.(1966). Clinical Inference in Nursing. Nursing Research, 15.
- Haynard, H. B. & Mehrtens, S. (1993). The Fourth Wave. San Francisco : Berrett-Koehler.
- Jung, C, G(1946). Psychological Types (Translated by Godwin Baynes). London : Kegan Paul.
- Knight, G. R. 저. 김병길 옮김(1989). Issues and Alternatives in Educational Philosophy. 교육과학사 : 서울.
- Loomis, M.(1982). A New Perspective for Jung's Typology, Anal Psychology, 27 : 29-59.
- Maynard, H. B. & Mehrtens, S.(1993). The Fourth Wave. San Francisco : Berrett-Koehler.
- Myers-Briggs Type Indicator Data Bank(1964). Gainesville, FL : Center for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ypes.
- Myers, I. B. & McCaulley, M. H.(1985).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m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L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Noddings, N. & Shore, P(1984). Awakening the Inner Eye.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Oxford English Dictionary(1961). London : Clarendon Press.
- Paterson, J. G. & Zderad, L. T(1876). Humanistic Nursing. New York : Wiley.
- Polanyi, M.(1966). The Study of Ma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w, L.(1988). Intuition in Decision-Marking. Image, 20(3). 150-154.
- _____ & Barrow, E, M.(1987) Intuition : A Neglected Nall Mark of Nursing Knowledge, Advances in Nursing, 10(1). 49-62.
- Rodale, J. I.(1984). The Synonym Finder. Emmens, PA : Rodale Books.
- Salk, J.(1983). Anatomy of Realit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raeder, B. D. & Fischer, D. K.(1987). Using Intuitive Knowledge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Nursery. Holistic Nursing Practice, 1(3) : 45-51.
- Walker, L. O. & Avant, K. C.(1988).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Norwalk, CT :
Appleton & Range.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MA : Merriam
Webster.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1986).
MA : Merriam Webster.
Westcott, M. R.(1968). The Psychology of In-
tuition. NY : Holt, Rinehart and McGraw-
Hill.

- Abstract -

A Concept Analysis of Intuition

*Shin, Kyung Rim**

Intuition is an abstract concept which is most often thought of as a nonrational, nonscientific mode of thought. However, since there are so many amorphous definitions of intuition that it seems important to clarify the meaning of this concept. Therefore, this study use the process of Walker &

Avant's concept analysis to define of the concept of intuition

Attributes of intuition were defined as

- 1) Knowledge of truth that is difficult to explicate ;
- 2) A type of immediate knowing ;
- 3) Knowledge without reasoning analysis ;
- 4) Knowledge that is attained based on virtue character which integrates all matter and is not attained through individual experience.

Antecedents of intuition consists of 1) as ground for knowledge or truth that is not available to trace through the analytic procedures ; & 2) the flow of Ki which unites human beings and the universe. Consequences of intuition events or incidents occurring as a result of the concept consist of verification of the truth through analytic procedures and application of knowledge in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ways.

To develop intuitive ability, as an educator should not only make studies in recognize, analysing and teaching concepts related to logical, rational decision making but should also recognize and teach concepts related to intuitive components of making decisions in clinical practice and classroom learning as well.

* Ewha Women's University